

†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금주 미사 독서: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미사 독서:	봉헌금: \$ 428
금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손준규 오셉, 손제규 마티아	교무금: \$ 490
다음 주 미사 복사: 최고은 소피아	합계: \$ 918
금주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봉헌봉사: 조성익 토마스 모어
다음 주 미사 해설: 우명희 가타리나/권민호 바오로	다음주 봉헌봉사: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회 계: 한진 베드로, 황성필 요한	
친교실 정리: 3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사제관 (11월 30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다음 기도모임 9월 첫주 금요일(장소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골프 모임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장소: Tumbledown Trail)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밀레의 '만종'(晩鐘)은 널리 알려진 그림입니다. 저녁에 저 멀리 있는 성당에서 울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감자를 캐던 부부가 일손을 멈추고 삼중 기도를 바치는 그림입니다. 들녘에서 일하는 농부에게 저녁은 마음이 바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부부는 그 종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드린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가난한 농부의 모습 자체는 그리 큰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목소리로 상징되는 성당의 종소리를 듣고 두 손 모아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은 엄숙하고 거룩하게만 보입니다. 요한 세례자는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요르단'이란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내려다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란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 세례자의 외침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써 거룩해지고, 거룩하게 살므로써 인간의 품위가 회복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남의 이목을 끌 만한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소박하게 살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함이란 바로 평범한 일상의 일들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입장에서 행할 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주임 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거주사제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바오로
(608) 628-7977

[대림 제 2 주일]

<제 1 독서> 바룩서, 5, 1-9

<제 2 독서> 필리피서, 1, 4-6, 8-11

회답송

-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복 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루카복음, 3, 1-6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십오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래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트래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려졌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여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오늘의 성가] 시작:88 봉헌: 210 성체: 178 파견: 93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년 12월 8일



키워드로 본 2012 년 한국 천주교회

2012 년 연말을 맞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미디어부는 올해 한국 천주교회가 주목한 관심사를 아래와 같이 키워드로 정리했다. 키워드 선정에 참고한 자료는 신문, 방송, 잡지, 교구 주보(광고 포함) 등 교계 매체들이다.

신앙의 해 베네딕토 16 세 교황이 선포한 ‘신앙의 해’가 지난 10 월 11 일(목) 세계 가톨릭교회에서 일제히 개막됐다. ‘신앙의 해’는 세속주의, 상대주의, 과학만능주의 시대에 교회가 직면한 ‘신앙의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기,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 주년을 맞아 공의회 정신을 계승하는 시기로 선포됐다. ‘신앙의 위기’는 한국 교회에도 시사점이 크다. 최근 교회 통계를 보면 교회 고령화, 성사생활 참여 감소, 신앙 전수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유아세례, 첫영성체, 주일학교 참여 감소 등 신앙의 활력 저하를 감지할 수 있다. 이에 한국 교회는 기존 신자들의 신심을 고양하는 한편, 교회를 떠난 냉담자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신앙의 해를 맞아 국내 16 개 교구는 교리교육, 성지순례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교구 주보 연재, 본당 신앙특강, 교리서 읽기 모임 등을 통해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 주교회의는 2012 년 춘계 총회 때 ‘냉담’을 주제로 주교 연수를 실시했으며,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는 2011,12 년 세미나 주제를 ‘냉담교우’로 정해 냉담교우 회도와 예방책을 논의했다.

사회교리 주교회의가 2011 년에 제정한 사회교리주간은 교구마다 사회교리 교육이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995 년부터 올해까지 교구, 대학생연합회, 본당 단위로 총 85 회의 사회교리학교를 개설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교리 문헌과 각종 자료, 사회교리 강좌 오디오 파일과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미사’(부산교구), ‘수요 월레미사 사람’(인천교구) 등 천주교 미사와 함께 열리는 사회 인사 초청 강연회도 꾸준히 다. 주보를 활용한 사회교리 보급도 활발하다. 지난 10 월, 원주교구는 2018 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 칼럼을 주보에 연재했다. 마산교구는 박창균 신부의 사회교리 해설과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의 에세이를 연재 중이다. 제주교구는 사회 이슈에 대한 강우일 주교의 기고문을 지속적으로 연재하고 있다. SNS 에서도 교회의 사회교리 실천은 신자들의 주요 관심사다. SNS 사용자들은 교회 이슈들 중 제주 해군기지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 해고노동자와의 연대활동 등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한 소식들을 적극적으로 인용(리트윗)하고 댓글을 작성하며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도보)순례 교황청 시성성에서 시복 심사 중인 ‘하느님의 종’ 125 위(순교자 124 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에 대한 시복시성 기원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순교자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성지순례 사목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주교회의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성지순례사목소위원회가 지난 2011 년 8 월에 전국 천주교 성지 111 개를 망라한 소책자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 단행본을 펴낸 이후, 2012 년 11 월 말까지 72 명이 전국 성지를 완주해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주교(현 위원장 목현진 주교)의 축복장을 받았다. 대모와 함께 길을 나선 다섯 대녀, 뇌병변장애를 앓는 아들과 동행한 부모, 어려웠던 시절의 은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음식점 주인, 더 늙기 전에 성지순례에 나섰다는 연령회원 15 명의 사연이 감동을 선사했다.

힐링 사회 전반에 세속주의와 경쟁 일변도의 가치관이 만연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현대인의 정신적, 영적 상처와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힐링’(치유)을 표방한 도서, 방송, 체험 프로그램의 대유행은 현대인의 불안과 가치관 혼란을 반영한다.

† 공지사항

1. St.Paul 임대료 마련을 위한 특별 모금 안내
 - 기간: 대림 기간 4 주, 크리스마스 전까지
 - 모금액 목표: \$2,000
2. 제 18 대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 안내
 - 기간: 12 월 5 일~10 일(기간 내 매일 오전 8 시~오후 5 시)
 - 장소: Glenview Commons 쇼핑몰 내 (1615 N.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
3. 다음 주 미사후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위원, 각 구역장님, 성모위원장님 참석 부탁드립니다.

(옆면에 이어서)

가톨릭교회에서 ‘치유’는 낯선 개념이 아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는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72 회나 소개한다.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는 죄에 속박된 인간, 고통받는 인간을 해방하는 치유의 성사다. 2 천 년 교회 역사에 축적된 수도 전통과 영성 수련도 용서와 화해를 통한 치유를 선사한다. 근래 천주교계에는 교회가 간직한 치유의 유산을 재조명하는 담론이 활발하다. 힐링의 세속화를 경계하면서, 참다운 치유는 하느님과과의 만남에 있음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광주대교구 윤반호 신부는 <사목정보> 11 월호 기고문을 통해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아우르는 ‘힐링 종교’였다”고 하면서, “오늘날 지친 한국인에게 올바른 삶과 힐링,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했다. 이러한 자각을 토대로, 가톨릭 영성과 현대 심리학의 흐름을 접목해 참다운 치유에 대한 갈망에 화답하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수도원 피정’을 주관하는 도미니코회 노경덕 신부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 갈등, 사별의 고통, 생애전환기의 혼란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피정을 찾는다”면서, “가톨릭 전례와 기도, 묵상을 토대로 하되 미술치료사, 한의사, 명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자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지켜 나가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혼인 성당에서 올리는 천주교 혼인 예식(혼인성사)은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거룩하고 신비롭게 보인다. 가톨릭교회는 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상징하며, 단일하고 풀 수 없는 유대관계라고 가르친다. 혼인하려는 신자가 혼인강좌, 사제 면담, 혼인 공시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은 혼인이 “성사의 품위로 올려질”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천주교 신자의 혼인은 신자 간의 성사혼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신자들의 혼인 중 비신자 또는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와의 혼인(관면혼) 비율은 2011 년 한국 교회 통계 기준으로 60%에 이른다. 사회 전반에 증가하는 이혼과 재혼, 다문화 결혼의 영향으로 천주교 신자들의 혼인생활도 다양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올해 교계 매체에는 혼인법 사례 상담(경향잡지 ‘혼인법이 궁금해요’, 가톨릭신문 ‘교회법이 놀자’)이 연재됐다. 교회 내 혼인 건수 감소, 가치관 혼란에 따른 부부 갈등이 가시화되면서, 혼인 준비 교육과 부부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수원교구는 혼인성사를 위해 교회를 찾은 예비 부부들에게 ‘혼인 전 견진성사’를 의무화해 견진교리를 통한 신앙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리지 엔카운터(ME), 부부여정,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등 부부 간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도 인기다. 미혼남녀 대상으로는 천주교구 오상철 신부의 ‘천생연분 피정’ 등 혼인생활의 의미를 배우고 배우자를 탐색하도록 돕는 피정도 등장했다.

(다음주에 이어서)